

# 사회 방언과 국어교육\*

김혜숙\*\*

## <차 례>

1. 논의를 시작하며
2. 논의의 필요성과 짜임
3. 사회 방언은 무엇인가?
4. 사회 방언의 교수·학습 현황은 어떠한가?
5. 사회 방언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6. 논의를 맺으며

## 1. 논의를 시작하며

이 연구는 국어교육에서 사회 방언을 수용하여 교수·학습하는 현황을 파악하고, 효율적인 사회 방언의 교수·학습 방안을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는 표준어 교육이 전제된 국어교육에서 방언이 담당하고 있는 긍정적인 역할과 효과를 살려 실제 의사소통 행위인 담론적 실천 교육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를 갖고자 함이다.

국어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언어 자료들은 무수히 많다. 표준어와 맞춤법 자료가 중심을 이루며, 문학작품에 나타난 언어·문학 자료, 다양한 매

---

\* 이 논문은 “사회문화적 소통과 국어교육”이라는 기획주제로 전남대학교에서 열린 제42회 국어교육학회 주제 발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이 자리를 빌려 토론을 해 주신 조선대학교 강희숙 교수님께 감사를 올린다.

\*\*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교수

체언어 자료, 그리고 일상 대화 자료 또한 국어교육에 없어서는 안 될 언어 자료들이다. 이 자료들 중, 국어교육이 지향하는 바와 합치를 이루면 서, 그 자체로 사회가 되고 역사가 되고 또 문화 가치가 내재된 것이 바로 방언 자료들이다.<sup>1)</sup> 왜냐하면 방언은 그 자체가 인간이 살아온 역사이고 살아가는 사회이며 공유하는 가치 문화로서 소통의 근간이 되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사회 방언(social dialect)은 사회 속에서 숨 쉬며 살고 있는 언어로서 인간의 다양한 삶을 드러낸다는 조건만으로도, 국어과 교수·학습 자료의 자격을 갖는다.

언어란 유전이 아니고 사회에서 습득되는 것이며, 사회는 불변이 아니고 인간에 의해 변화하는 것이다. 곧 한 개인의 경험 범위가 확대됨으로써 언어의 변화를 겪게 되고, 그 언어 변화는 사회의 변이를 초래하는 상호호환의 관계를 가진다. 이는 인간과 언어, 언어와 사회, 사회와 문화 등이 서로 환기하는 관계성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결국 ‘인간’에 의해 ‘사회’ 속에서 서로 공유하는 생활 방식인 ‘문화’를 형성하도록 수단이 되어 주는 ‘사회 방언’이야말로 국어교육이 지향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대상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 방언을 통한 국어교육은 학습자가 ‘지금’ ‘여기’ 있는 상태의 상황 및 사회·문화적 맥락에 가장 적합한 언어를 대상으로 하는 교수·학습이며, 언어가 수행되는 사회에 대한 이해이고, 더 나아가 대중의 문화 가치를 알고 수용하는 작업이다.

이 연구에서는 우선 사회 방언의 개념을 정리하고, 현재 국어교육에서 다루고 있는 사회 방언의 현주소를 점검한 후, 앞으로의 교수·학습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작업은 학습자의 반성적 사고력과 심미적 정서성을 함양하고 사회·문화적 가치를 획득하여 국어과 교수·학습의 역동성을 꾀할 기회가 될 것이다.

1) 방언이 국어교육의 타당함을 보이는 개정 교육과정의 성격 일부를 발췌해 정리하면, “한국민의 삶이 배어 있는 국어, 국어 현상 탐구, 인간의 다양한 삶을 총체적으로 이해, 실제 상황에서 주체적인 국어 활동을 강조, 작품에 나타난 인간의 삶을 총체적으로 이해”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 2. 논의의 필요성과 짜임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남들과 소통하며 더불어 살기 위해 가장 필요한 요소는 ‘언어’, 즉 ‘적합한 언어 사용’ 이라고 할 수 있다. 상황에 맞는 적절한 언어 사용은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가장 중요한 소통 방법이며, 그로 인해 원활하고 성공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이 언어라는 것은, 하나의 언어 공동체에서 동질적이고 불변인 존재로 통용 되는 것이 아니다. 말의 현실은 지독한 혼란으로 느껴질 만큼 풍부하고 다채롭다. 이런 다양성은 역사적 변천에서도 오지만, 사회적 변이에서 연유하기도 한다.<sup>2)</sup> 곧 언어는 상황적·사회적 맥락의 다양한 환경의 영향에 따라 내용과 형태의 다양한 변이형이 존재한다. 이런 점에서 언어를 사회·문화와 관련지어 연구하는 것은 언어의 진정한 본질 규명에 필수적 전제가 되는 작업이다.<sup>3)</sup> 이렇게 언어가 인간과 역사, 사회, 문화와 떼어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그 언어를 말하는 이의 개인적·사회적 특성, 문화적 가치 및 대화 환경의 사회생태학적 특성에 비추어 점검하고 교육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첫째 사회 방언의 개념을 파악하고, 둘째 국어과 교육과정을 통해 현행 국어교육에서 사회 방언을 어떻게 수용하고 학

---

2) 지금까지 방언에 대한 연구는 지리적인 분포에 따른 지역 방언 연구와, 사회적 요인을 중심으로 한 사회 방언 연구, 그리고 언어를 역사적으로 연구하여 살펴본 통시적 연구 등이 있어 왔다. 이와 같은 방법이 방언에 대한 지식, 분석, 체계 정립의 깊이를 위한 연구였다면, 국어교육으로서 방언 교육은 인간, 사회, 문화의 이해이며, 동시에 생활이나 문학으로서의 언어의 역할 및 활용의 넓은 폭을 지닌다. 특히 이러한 교육은 방언의 가치를 보존하고 바람직한 소통 언어를 만들어가는 역동적이고 성찰적 태도를 양성하는 데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3) Fishman(1968 : 14)에서 밝히듯이, 언어 연구는 “언어 변이형의 특성, 이들 변이형이 갖는 기능상의 특성 및 이들 변이형을 말하는 이의 특성과, 언어 사회 공동체 속에서 이들이 끊임없이 상호 작용하고 변화하는 것”을 자료로 삼아야 한다. 국어교육의 지향점 또한 궁극적으로 인간 탐구라면 비록 일관된 체계의 부족으로 오랜 시간과 노고가 들더라도 실제 사용 언어가 바탕이 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습하는지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정리하며,<sup>4)</sup> 셋째, 사회 방언의 교수·학습 효과를 염두에 둔 교수·학습 방안을 제안한다.

### 3. 사회 방언은 무엇인가?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공동 집단 속에서 공유하는 보편어를 가지고 있지만 그 공동체는 다시 또 다른 작은 사회 계층으로 나뉘어 타 공동체와 변별되는 말을 사용하게 된다.

곧 한국이라는 공동체 안의 국어는 남성과 여성의 집단으로 나뉘면서 그들의 변별된 말이 쓰이며, 승려와 학생은 각각 자신들만의 삶의 영역을 지키면서 타인을 차단하는 비밀스러운 언어를 가진다. 또한 서로 다른 직업 때문에 사용 언어가 다르기도 하고 세대가 달라 사용 언어의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더욱이 오늘날과 같은 정보화 사회에 만연한 온갖 대중 매체로 인해 한 시대에 유행하는 표현들이 의식하지 않는 사이에 널리 유포되어 규정 언어를 잠식하기도 한다.<sup>5)</sup> 이렇게 사회 방언은 세대에 따라, 성별에 따라, 직업에 따라, 대중성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되는 모든 언어 형태를 통칭하는 용어라 할 수 있다.<sup>6)</sup> 따라서 굳이 사회 방언을 분류해

- 
- 4) 정밀 점검을 위해서는 교육과정, 교과서, 그리고 실제 교수·학습 현장의 세 부분을 나누어 분석·확인해야 한다. 아직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서가 나오지 않은 상태라 교과서와 현장 점검은 후고로 미룬다.
  - 5) 사회 방언 유행들의 개별 개념은 생략한다. 다만 이들 간의 넘나들이 자유롭다는 것은 염두에 두자. 예를 들어 비밀을 목적으로 한 은어가 널리 사용되면 비속어나 유행어가 되고, 한정된 시간 속에서는 널리 사용되는 유행어가 지속성을 가지면 신어가 되며, 비어가 오랜 시간 대중의 귀에 익고 욕말의 개념이 약화되면 속어가 되기도 한다. 또한 성별어는 혼용되기도 하고 세대별 계층어는 그 변별성이 약화되기도 한다.
  - 6) 언어의 변이형은 집합적 특성의 지역 방언이나 사회 방언 외에도 존재한다. 곧 언어 사용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어휘나 표현, 즉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누구에게, 무엇 때문에 이야기하느냐 등에 따라 사용 언어 형태가 달라지는 개별어(social dialectology)를 의미한다. 곧 방언은 인간이 사용하는 모든 실제 언어의 총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만 여기서는 적어도 두 사람 이상이 모여 사회를 이룬, [+집합성]의 자질을 가진 실

보면, 그 안에는 유행어, 은어, 비어, 속어, 전문어, 신어, 남성어와 여성어, 노인어와 유아어, 군대어, 각종 전문어 등이 속한다. 곧 사회 방언은, 표준어와 변별된 ‘표준이 아닌 말’의 개념이 아니라, ‘실제 인간에 의해 사용되는 말’이 기준이 되므로, [-지역성]의 자질을 가진 모든 사회적 분화로 생긴 자연 언어를 총체적으로 일컫는다고 할 수 있다.<sup>7)</sup>

그러나 현재 인식의 편의로 구별된 사전적 의미로 보면 사회 방언은 “한 언어에서, 사회 계층에 따라 분화된 말의 체계”(표준국어대사전, 국립국어원)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이 연구의 중심은 이러한 한정된 개념을 가진 것으로 폭을 좁혀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 방언은 어쩔 수 없이 생긴 사회적 거리, 즉 사회적 지위(social status)에 의해 분화된 것들을 가장 전형적인 형태로 본다.<sup>8)</sup> 이렇게 사회 계층이 주요한 언어 변수의 하나로 작용하기 때문에 사회 방언은 사회적 요인에 의거하여 유형별 분류가 되어야 하는데, 이 사회적 요인은 지리적 요인에 의해 분류된 지역 방언에 비해 간명하지 않다. 그만큼 사회적 요인은 다양하면서 명확히 한계도 나눌 수 없어 서로 겹치고 혼용되고 또 옮겨 가기도 한다.<sup>9)</sup>

---

제 사용 언어를 대상으로 한다.

- 7) 방언은 인간이 사용하는 모든 언어의 총체이다. 그 중 외연적 분화로 생긴 방언을 지역 방언, 사회적 분화로 생긴 방언을 사회 방언으로 불리지만, 지역 방언도 넓게 보면 사회 방언에 해당한다. 지역 또한 ‘인간, 지금, 여기’라는 관점으로 보면 사회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요즘에 대중 매체의 확산으로, 하나의 지방 방언이 대중 매체의 힘에 의해 유행어나 속어나 신어가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드라마 상에서 어떤 지방 방언은 ‘폐쇄된 사회 집단으로 반항적이고 무식한 인물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며, 그로 인해 그 지방 방언은 사회의 어두운 곳에서 생활하는 집단의 거칠고 교양 없는 사회적 인물을 표현하는 비속어가 되고 유행어가 되기도 한다. 이렇게 현실적으로는 지방 방언과 사회 방언이 혼용되어 있으며, 표준어를 기준으로 볼 때 지방 방언도 속어에 속하기 때문이다.
- 8) 사회적 지위(social status)는 개인이 사회 전체의 위계 구조 속에서 차지하는 위치. 일반적으로 재산, 직업, 출신, 가문, 혈연, 혈연, 교육, 인종, 성별 따위가 기준이 된다.
- 9) 예를 들어 ‘유행어’란 ‘어떤 사건이나 사회적 현상, 메스미디어 전파에 의해 언중들의 공감을 얻어 일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언어’이며, ‘은어’는 ‘한정된 사회 내에서 사용되는 비밀스러운 언어’이다. 다만 이들은 서로 넘나들 수 있는 특성 때문에 유형별 개념과 쓰임의 파악보다는 사회 방언 안에서 그 넘나들음을 통한 사회적 맥락 파악이 국어교육에 효과적일 것이다.

사회 방언에서 사회란 무엇인가? 적어도 사회라고 하면 어떤 공통된 영역 안에서 서로 정보나 의미를 공유하면서 시간적 지속성을 가지고 묶인 구성원의 집단이라야 한다. 그런데 이 공유하는 의미는 언어 자체의 형식에 의해 생성되는 게 아니라 의사소통 행위, 곧 담론적 실천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다. 결국 어떤 집단을 이루느냐에 따라 그 공유하는 의미는 서로 다르며, 함께 경험하는 세계는 공통 집합을 이루게 되고, 그에 따라 사용 언어의 형태와 의미는 공통으로 형성되며, 그로 인해 그들의 삶의 방식은 동일해지고, 그건 곧 그 집단의 문화를 창조하게 되는 것이다.<sup>10)</sup>

이상 거칠게 훑어본 사회 방언의 특성을, 국어교육적 범주에서 활용하기 위하여, 언어적, 정의적·심동적, 사회·문화적 특성으로 나누어 요약 정리해 보자.

첫째, 사회 방언의 언어적 특성을 이해해야 한다.

사회 방언은 우리말을 다양하고 풍성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말의 생생한 현 모습이자 역사적 자료의 가치를 지닌다. 사람들이 널리 공유하는 일상 표현조차도 여러 세대와 여러 집단들 속에서 변이를 겪으면서 서로 다른 형태, 의미, 소리를 지니고 있다. 그래서 말을 한다는 것은 추상적 언어 규범을 규칙으로 하여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변별되는 다양한 사회 방언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행위이다. 거듭 강조하듯이 국어 교육은 국어 활동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방언이야말로 인간이 실제 사용하는 자연 언어로서 언어 변화가 인간과 사회의 변이를 유도한다면, 사회 방언의 음운, 어휘, 문법, 화용상의 언어적 특성은 해당 사회의 언어적 지식이고 원리이며 기능임에 틀림없다. 또한 우리가 사용하는 유행어나 은어에는 새로운 표현들이 많이 쓰이며, 언어의 쓰임새도 차이가 난다. 이 때문에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낯설고 불편하며 언어 파괴의 주범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그러나 국어 정책이나 우리말의 미래와 관련

10) 즉 한국인이, 서울 지역 거주자가, 내 일터가, 내 친구들이, 나와 성별이 같거나 다른 우리들이, 내 가족이, 결국에는 나 혼자만이 그런 한정 집단 문화를 갖고 한정 집단의 언어 변이형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곧 언어가 본질적으로 사회적이면서 동시에 개인적임을 드러내는 결과이다.

해서 긍정적 요소도 많다. 기존의 표현에 새로운 뜻을 더해 쓰기도 하며 일부 새말은 국어사전에 오르기도 한다. 특히 통신 언어의 새말과 새로운 용법은 우리말 어휘를 늘리고 쓰임새를 넓혀 주기도 한다. 결국 사회 방언의 언어적 특성 교육은 문법 영역의 폭을 넓히고 학습 동기를 유발하고 유창한 언어 활동과 사고력 향상에도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둘째, 사회 방언의 정의적·심동적 특성을 이해해야 한다.

사회 방언은 학습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정의적 풍요로움을 주는 동기를 부여한다. 사회 방언은 무엇보다 언어적 상상력과 창의성을 기르는 데 도움을 주며 재미와 즐거움을 주는 강한 오락적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교수·학습의 활기와 현실감과 의욕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표준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말맛을 느끼게 한다.<sup>11)</sup> 사회 방언은 한편으로는 소통자간의 정서적 교감을 이끌어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서로의 차이를 확인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특히 문학 텍스트에는 그러한 방언의 역할이 다양하게 드러나 있어, 사회 방언을 통한 정의적·심동적 특성을 교수·학습하기에 적합하다. 예를 들어 사회 방언을 통해 등장인물의 성격, 상황 및 사회·문화적 맥락을 분석하고 판단하는 단서로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사회 방언의 연상성, 비유성, 상징성을 통해 문체 교육이 가능하며 학습자의 풍부한 상상력과 현실에 대한 감각, 해학성 등을 양성하는 교수·학습에 유효하다.<sup>12)</sup>

셋째, 사회 방언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이해해야 한다.

사회 방언은 사회적으로 한정된 집단인 사회적 계층이나 문화를 드러내는 사회·문화적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언어와 사회·문화적 변인 사이에 나타나는 의미의 변이 현상을 파악하는 일은 사회 방언을 정확히 이

11) 특히 청소년 집단의 은어는 표준어만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억압에 대한 저항 심리가 깔려 있다. 어쩌면 이 은어들은 교육 현장에 공개한다면, 이런 원인으로 만들어진 거칠고 속된 것들은 사라지고, 창조성과 역동성으로 우리말을 늘리고 발전시키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2) 물론 사회 방언 자료는 자칫 언어 자료 자체에 탐닉하여 원래의 방향과 목표를 잊을 수 있다. 이러한 위험성을 막고 올바른 방향으로 안내하고 지도해야 하는 교사의 역할과 학습 방법이 필요하다.

해하고 활용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다.<sup>13)</sup>

만일 구성원이 분위기를 고려하여 효과적으로 사회 방언을 사용하면 친화력을 키우고 긴장감을 해소하여 자연스럽게 원활한 소통 맥락을 형성할 수 있지만, 잘못 사용하면 분위기를 망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언어의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인간 개개인의 삶의 모습이 그러하듯, 사회 방언은 그 변이의 다양성 때문에 체계로서의 언어, 규범으로서의 문법을 타락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 방언이 아무리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우리말의 한 실체이자 큰 줄기임은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회 방언을 교수·학습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어교육에서 국어를 빼는 일과 같다고 하겠다.

결국 사회 방언은 인간관계와 상황과 사회, 그리고 문화를 파악하는 가장 효과적인 언어 자료이며, 이것을 교육하는 것은 산교육이 될 것임은 자명하다.<sup>14)</sup>

13) 이에 대해 장태진(1995 : 69)에서는 “변말의 사회·문화적 의미(sociocultural meaning)는 ‘집단 변에 나타나고 있는 사회적 계층이나 집단 또는 문화 항목에 관한 의미’를 지칭하는 것이다.”라고 정리하고 있다.

14) 사회 방언 대부분의 언어 자료들은 사회상 반영해 준다. 예를 들어 5·60년대에는 ‘공비’를 ‘산손님’, ‘중앙정보부’를 ‘남산’이라고 하고, ‘각하, 시원하시겠습니다.’와 같은 표현이 유행처럼 번졌다. 이들은 그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고, 직접적인 비판을 경계해야 하는 시대의 정치 풍자 및 사회 풍자가 완곡어와 유희성으로 얼마나 잘 표현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 그 당시 은어로는 동일 낱말을 이중 의미로 사용하는 특성을 가진, ‘자유당, 신민당, 공화당’ 등이 있었다. ‘자유당’은 ‘제멋대로 생긴 얼굴’을, ‘신민당’은 ‘작은 여드름’, ‘공화당’은 ‘큰 여드름’을 지칭하는 은어였는데, 이는 공화당 집권 시절의 정치 상황을 잘 묘사한 은어들이라 할 수 있다.

#### 4. 사회 방언의 교수·학습 현황은 어떠한가?

국어교육의 대상은 ‘국어 활동’이다. 곧 국어교육의 대상은 국어의 성격, 구조적 특성과 같은 국어 자체의 지식 이해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지금 여기’에서 학습자들이 수행하는 국어 활동의 요소들을 두루 포함해야만 한다. 따라서 국어과 교수·학습은 인간의 의사소통과 삶의 양식으로서의 국어 활동을 다면적으로 활용하는 현장이 되어야 한다.

이미 사회 방언의 개념과 특성에서 주지하다시피 사회 방언은 사람들이 평소에 사용하는 ‘진짜말’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교수·학습의 가치가 크다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두려움으로 국어교육에서 사회 방언 다루기를 조심스러워 하고 있다. 우선 현 국어교육 현장의 실상을 통해 그 문제점을 본 후 다시 한번 세밀히 그 필요성을 정리해 보자.<sup>15)</sup>

2007년 국어과 개정 교육과정의 가장 중요한 화두는 “국어 활동 현장의 상황 및 사회·문화적 맥락에 맞는 국어 능력을 신장”하는 것이다. 곧 국어교육은 상황 맥락과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실제 사용되는 기호와 기호 자체적인 특성, 약호와 의미 작용 방식 등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sup>16)</sup>

결국 첫째, 언어 현상을 탐구할 것, 둘째, 언어가 사용되는 상황, 사회, 문화를 점검하고 바르게 알 것, 셋째, 옳고 그름 및 바람직한 방향 등을 학습자 스스로 터득하여 국어 생활에 활용할 것, 넷째, 그로 인해 보다 나

15) 이 연구에서는 2007 개정 교육과정의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되 비교 자료로 제7차 교육과정을 확인한다.

16) 참고로,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성격은 “한국인의 삶이 배어있는 국어를 효과적으로 국어 생활에 영위하고, 미래 지향적인 민족 의식과 건전한 국민 정서를 함양하며, 국어 발전과 국어 문화 창달에 이바지하려는 뜻을 세우게 하는 교과”로 규정하였다. 이는 국어가 사용되는 맥락과 목적과 대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열린 마음으로 국어 사용 양상과 내용을 정확하고도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과, 사상과 정서를 효과적이고도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하는 교과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은 언어 발전, 사회 안정, 문화 가치 창조에 기여할 것 등을 성취해 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현재 국어교육의 실상은 어떠한가? 과연 ‘사용 언어’, ‘활용 능력’, ‘문화 창조’ 등의 핵심어를 잘 제시하고 순환 연계시키고 있는가?

실제 사회 방언의 사용 양상과 교육적 효과가 어떻게 제시되고 있는지 개정 교육과정 중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의 실태를 살펴보자.

〈표 1〉 200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내의 사회 방언 관련 내용

학년	영역	성취 기준	내용 요소의 예
4	문 법	(1) 표준어와 방언의 사용 양상을 이해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표준어와 방언의 개념 이해하기</li> <li>표준어와 방언이 사용되는 상황 이해하기</li> <li>상황에 맞게 표준어와 방언을 적절하게 사용하기</li> </ul>
8	쓰 기	(4) 목적, 독자, 매체가 쓰기의 내용과 형식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서 글을 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온라인 대화, 문자 메시지, 전자우편의 매체적 특성 이해하기</li> <li>매체의 특성이 쓰기의 내용과 형식에 미치는 영향 이해하기</li> <li>매체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형식의 글쓰기</li> <li>속어, 비어, 성차별적 언어 사용 등 부적절한 표현 고쳐 쓰기</li> </ul>
	문 법	(2) 여러 종류의 어휘를 비교하고 그 사용 양상을 설명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문어, 유행어, 은어의 개념과 관계 이해하기</li> <li>전문어, 유행어, 은어의 사용 양상 및 특성 이해하기</li> <li>전문어, 유행어, 은어 사용의 효과와 문제점 파악하기</li> </ul>
10	듣 기	(3) 사회 방언을 듣고 언어적 다양성을 이해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 방언의 특성 이해하기</li> <li>사회 방언의 다양한 표현 조사하기</li> <li>사회 방언에 반영된 집단의 특성 파악하기</li> <li>사회 방언의 소통의 기능 이해하기</li> </ul>

개정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과 내용 요소로서 사회 방언의 개념, 유형, 사용 상황 등이 들어 있는 단원은, 4-문법-(1), 8-쓰기-(4), 8-문법-(2), 10-듣기-(3)의 네 부분뿐이다. 그것도 문법 영역에 치중되어 있고, 네 부분 중 8학년에만 두 영역에 걸쳐 제시되어 있다.

이들은 전혀 연계성을 꾀한 배려라고 보기 어렵다. 물론 6-읽-(4)와 8-말-(3)에는 직접적으로 사회 방언이 드러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내용 요소를 볼 때 사회 방언 자료가 필요할 거라는 짐작은 가능하다.

〈표 2〉 200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내의 방언 관련 내용

학년	영역	성취 기준	내용 요소의 예
6	읽기	(4) 웃음을 유발하는 글을 읽고 표현의 익살스러움과 재미를 느낀다. <sup>17)</s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웃음을 유발하는 글의 표현상의 특성 이해하기</li> <li>• 웃음을 유발하는 표현의 효과 평가하기</li> <li>• 웃음을 유발하는 글의 소통 맥락 이해하기</li> <li>• 웃음의 효과를 알고 즐기는 태도 기르기</li> </ul>
8	말하기	(3) 말의 내용이나 말하기 방식의 차이를 고려하며 웃어른과 대화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대에 따른 말하기 방식 차이 이해하기</li> <li>• 서로 다른 세대가 공유할 수 있는 대화 화제 찾기</li> <li>• 웃어른을 존중하는 말 문화 이해하기</li> </ul>

그렇다 하더라도 이 교육 내용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학년별 내용 중 사회 방언에 대한 것은 4학년이 되어야 처음 소개된다. 그것도 4학년의 “표준어와 방언의 사용 양상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성취 기준에서 다루는 방언이 지역 방언인지 사회 방언인지 명확한 지시 없이 뭉뚱그려져 있다.

국어과 개정 교육과정은 특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상황 속에서 학습자가 도달해야 할 성취 기준을 중심으로 교육 내용을 선정하고 배열하여 국어 능력이 신장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초등학교 4학년이 되어야 사회 방언이 교수·학습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이미 사회 방언을 여과 없이 남발하고 습관화 한 이후 처방하는 사후약방문이 되는 격이다.

둘째, 네 부분 중 두 부분이 문법 영역인데, 4학년 문법에서는 표준어와의 비교를 통해 개념 정도만 파악하는 교육 내용을 학습한 후, 그 다음 학습 단계는 8학년으로 뛰어넘는다. 이것은 계열성(sequence)의 원칙에 어긋나는 방법이다. 계열성의 관점에서 볼 때, 4-문법(1)의 ‘방언의 개념 이

17) 이 단원의 ‘글의 수준과 범위’를 보면, “웃음 유발 자체가 글의 장리적 속성이 되며 유쾌하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글을 대상으로 한다. 익살, 농담, 재담, 쿨트, 유머, 만담 등 웃음을 유발하는 요소를 비중 있게 포함하고 있는 글을 다룬다.”라고 정리되어 있다. 따라서 이 단원에서는 ‘사오정 시리즈’ 등과 같은 유행 표현이나 정치 풍자 표현 등을 다룰 수 있으므로 이 단원은 간접적으로 사회 방언의 쓰임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해’, ‘상황에 맞게’, ‘방언을 적절하게 사용하기’ 등에서 8-문법-(2)의 ‘전문어, 유행어, 은어의 개념과 관계’ 학습은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원리에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회 방언으로의 세분화를 피하고는 있지만 성별, 세대 등의 사회 요인 유형의 부재는 정밀하게 난이도별로 수직적 반복을 의도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유기적 연계성 부족은 학습자 스스로 실제 언어의 실상을 점검하고 판단하며 바르게 활용하게 하고자 하는 목적에 도달할 수 없게 만든다.

셋째, 영역으로 보아 문법 두 단원, 쓰기 한 단원, 듣기 한 단원에서만 사회 방언을 다루고 있어, 계속성(continuity)이나 통합성(integration)에도 위배된다. 사회 방언은 언어적, 상황적 관련 학습뿐만 아니라 읽기와 문학 영역에서도 큰 역할을 차지할 수 있다.<sup>18)</sup> 특히 문학 작품에서 드러난 사회 방언은 감성적, 미학적 특성은 물론이고 등장인물의 성격과 배경을 알리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학습자는 문학을 통하여 창의적인 언어 능력과 사고력을 기르고, 정서와 심미 의식을 함양하고 가치관을 확립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로서 자아를 발전시킬 수 있다(개정 교육과정, 2007).”라고 하는 문학 영역의 성격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물론 사회 방언을 일부러 가르치고 지나치게 사용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다.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실제’ 범주란, 일상생활, 문학 작품, 다양한 매체 자료 등을 의미하며, 이들은 성취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며, 그것으로 인해 창의적이고 비판적 수용과 생산의 효과를 피하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실제 언어 자료의 대상들 속에서 사회 방언은 피할 수 없는 자료이며, 그것들을 여과 없이 받아들이지 않게 하려면 비판적이고 성찰적인 교수·학습은 필수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sup>19)</sup>

18) 물론 매체언어 영역에도 당연히 사회 방언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개정 교육과정의 ‘매체 언어’는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의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 영역에서 담고 있는 매체 언어 관련 내용을 심화·발전시킨 과목”으로서 “매체 언어의 성격과 사회·문화적 맥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매체 자료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창의적으로 생산하는 능력을 기른다.”라고 성격을 규명하고 있다. 특히 “매체 언어가 형성하는 대중문화의 특성 이해”라는 내용은 사회 방언 자료의 적극적 활용을 예견할 수 있다.

언어 교육은 언어의 정확성과 유창성을 획득하는 것만으로 목표 달성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적어도 언어 기능을 획득했다는 것은 그 사용 언어를 통하여 인간의 행동 변화를 이룩하여 보다 건전한 인간 사회를 이루어가는 작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국어교육은 문화적 대중성이 강조되는 사회적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

## 5. 사회 방언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학습자들은 사회적 역할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언어 사용의 방식이나 유형 등에 대해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다양한 언어 공동체의 창조적이고 비판적인 구성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언어의 습득 과정은 사람이 사회화·문화화 되어가는 과정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곧 전달하려는 정보 이해의 내용 층위는 반드시 사람들 간의 관계적 층위 속에서 이루어지므로, 소통을 위한 언어는 사회를 상징하고 또한 구성원의 삶의 방식과 가치인 문화를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학습자에게 사회·문화적 문식력을 키우고 보다 나은 언어 수준과 사회·문화적 수준을 올리기 위해서 사회 방언 교육은 필수적이다. 이는, “인간의 다양한 삶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을 기르고 심미적 정서를 함양한다(개정 교육과정 해설서, 2008).”고 보는 국어교육의 방향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사회 방언 교육은 당연히 순기능을 최대한 키우고 역기능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교수·학습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이러한 교육의 결과로

- 
- 19) 제7차 교육과정에 드러난 사회 방언 내용 체계를 보면, 국어지식 영역에서는 2, 5, 7, 8학년에 걸쳐 모두 여섯 단원에서 기본 및 심화 수준별로 사회 방언을 다루고 있다. 7차 교육과정은 왜 사회 방언이 국어지식 영역에만 있는가 하는 문제와, 왜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7차 교육과정의 여섯 단원을 네 단원으로 줄였는지, 또한 더 지학년으로 내려 학습해도 부족할 판에 2학년에 있던 사회 방언 내용을 4학년으로 올린 이유는 무엇인지도 토론이 필요하다.

학습자는 사회 방언을 정확히 알고 상황에 맞게 선택적으로 사용하고 바르게 적용함으로써, 사회·문화적 가치를 향유하는 성숙한 태도를 길러야 한다. 사회 방언을 사용하는 인간의 심리는 다양하다. 곧 주어진 상황의 변이를 유도하여 변별성을 갖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 관심을 집중시키되 서로의 차이를 보이는 독립성으로, 아니면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음을 보이는 대중성을 위해서일 수도 있다. 따라서 학습자 자신이 실제 생활 경험 속에서 능동적·수동적으로 수행·수용하는 사회 방언을 학습 자료로 삼아, 사회 방언의 표현 효과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안내할 수 있는 세분화된 전략을 제시하고, 동시에 사회 방언 사용의 실천적 태도를 지니도록 해야만 학습자의 언어적 삶에 유의미한 교육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장에서는 사회 방언의 교육 내용과 방법으로 제시할 만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그 가능성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 5.1. 반성적 사고력 향상을 위한 교육

개정 교육과정에서 밝히듯이, 학습자는 국어 수업을 통해서 ‘국어 사용’, ‘문법’, ‘문학’에 대한 이해를 확충해야 하며, 국어 활동에 작용하는 맥락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국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국어 문화에 대한 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국어과 발전과 국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맥락을 충분히 고려하여 효과적으로 국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정확한 국어와는 별개 일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더구나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되는 부정확하다고 판단되는 언어들은 어떤 인공적 규제나 강요로도 사라질 수 없는 자연 발생적 특징을 지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어교육에서는 규제와 강요로도 어찌지 못하는 언어들을 방치해야 하는가?

만일 그리하면 국어교육이 의도하는 목적을 평생 달성할 수 없게 된

다. 소위 규범문법적으로 부정확하고 언어 파괴나 문화 타락을 선도할 수도 있는 사회 방언들까지도 공개적으로 드러내어 학습자 스스로 탐구하고 반성하고 바르게 적용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sup>20)</sup> 이를 위해서는 탐구학습이 가장 적합한 교수·학습 방안일 것이다. 탐구학습은 사회 방언처럼 현상학적 특성을 지닌 언어의 실상을 직접 확인함으로써 이미 준거로 규정된 지식이나 기능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고 상황이나 사회를 통해 특성을 터득하고 가치를 확인하고 반성적 사고력을 향상할 수 있는 활동에 가장 적합한 방법이다.

〈표 3〉 반성적 사고력 향상을 위한 사회 방언 탐구학습



사회 방언 교육을 위한 탐구학습은, ‘반성적 사고력의 향상’을 목표로 국어를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지식과 기능을 익혀, 실제 사용에 지식 생산의 경험을 활용하는 성취 기준에 도달하는 것이 목적이다.<sup>21)</sup>

20) 이미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사회 방언은 상황적·사회적 맥락에 따라 달리 사용되는 언어의 변이체들로서, 한국인이 사용하는 실제적인 한국어 전체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런 부정적인 언어 변이형만 있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해 둔다. 다만 이들은 학습자들이 이미 널리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음에도 교육 현장에서 여전히 거부 반응을 보이는 부분이기에 특별히 부각시켜 보이는 바이다.

21) 이 연구는 사회 방언의 국어교육적 관심을 유발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므로 교수·학습 방안의 구체적인 절차와 평가 방안 등은 후고로 미룬다. 또한 지면 관계상 구체적인 실제 사회 방언 자료 제시는 생략한다.

우선 반성적 사고력 향상을 위한 탐구학습은 기존 사회 상황과 문화적 맥락에서 사용하는 사회 방언 자료를 통해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해결해 가는 과정으로 진행한다.

자료는 직접 학습자 스스로 소통 상황에서 찾아낸 것은 물론 다양한 매체 내의 말하거나 쓰인 것을 수집한다. 이러한 사회 방언 자료들은 학습자들에게 지식 이해의 경직성을 해소시키고 친밀감을 형성함으로써 수업의 흥미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둘째, 수집한 자료는 말하는 이, 듣는 이, 시간·공간적 장면 등의 상황 맥락에 따라 서로 유형별로 묶어 분류한다. 예를 들어 소통자들의 제한된 집단 사회, 대중성과 순간성, 전문 직종, 욕설과 통속성, 성별, 세대, 종교 등의 사회적 변별 요인들에 근거하여 주어진 사회 방언 자료를 다양한 소통 상황별로 분류하는 활동을 실시한다.

이 활동은 언어와 사회의 관계를 스스로 깨닫고 사회 방언의 개념을 스스로 터득하여 상황별로 분류할 수 있는 사고력을 키우며 자신의 언어 생활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부여할 것이다. 곧 학습자가 언어를 통해 사회와 교섭하고 언어의 역할에 익숙해짐으로써 문법 교육이 실제적으로 삶에서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성찰한다. 이 단계의 방언 교육은 생생하게 살아있는 언어 연구를 통해 방언이 갖는 독자적인 체계와 그 중요성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분류된 어휘 및 표현들이 어떤 언어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 분석하는 활동을 한다. 예를 들어 단어형, 구절형, 문장형의 분리, 단일어, 합성어, 파생어의 구별,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외국어 등의 어종 분류, 또는 결합 방식에 따른 생략, 전위, 확장, 전의 등의 선별, 그리고 표준이 되는 표현들과의 관계 파악 등을 들 수 있다. 물론 이들의 분석, 종합 활동은 표준어의 정확성, 규범성, 적절성이 기준이 된다.

국어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사용 언어를 자료로 하여 학습자의 인지적·정의적 성장을 꾀하고, 그로 인해 의사소통 능력을 갖고 언어문화적 가치를 함양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언어 지식의 이해’ 하나도 언어의 다면적 통합성에 의한 교수·학습이 필요하다. 즉 실제 사용 언어 자

료로 그 기능을 점검하고 내용을 파악하고 역기능을 제거한 후, 사고와 문화와 소통의 통합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 결국 실제 사용하는 언어 자료를 분석, 이해, 수용, 생산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야만 지식은 실제 사용을 위한 토대가 되고 실제 사용은 또 지식의 자료가 되어 상호 보완, 발전이 가능해질 수 있다. 즉 학습자의 실제적 언어 경험 자료를 통해 이해해야 하는 언어 지식이 이렇게 실제 언어 자료가 바탕이 되는 수행적 지식이라면, 전체 언어 자료는 전체를 부분으로 갈라 전체 정보 체계를 꼼꼼히 수용하는 분석적 학습(이해)이 되어야 하며, 이는 곧 표현과 이해의 교섭 과정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사고력의 깊이와 창조성, 그리고 유창성을 고양시킬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활동 단계는 학습자에게 문법적 지식의 이해는 물론, 공통어로서의 보편성만으로 한정되었던 실제 국어의 특질을 인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런 언어적 특성을 파악하는 활동은 특히 더 적극적이며 끈기 있고 세심하게 고찰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때 교사는 원활한 토론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안내자이자 조력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학습자들의 토론을 통해 학습자 스스로 각 유형의 바람직한 사용 방안과 심리에 대해 검증해 낸다.

이 단계에서는 사회 방언의 실제 사용에서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협동을 통해 합리적으로 의미를 산출하는 과정으로서 학습자의 통찰력을 고양시킨다. 곧 교사는 유용한 사회적 언어 환경의 장을 마련해 주고 학습자는 그 상황에 적절히 반응하는 언어 판단과 태도를 기르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학습자는 사용해도 될 언어 및 상황과 사용해서는 안 될 언어 및 상황을 결정하고, 거칠고 비속한 말이 우리 언어 활동에 끼치는 영향 관계를 파악하여 순화하는 활동을 한다.<sup>22)</sup> 지금까지 수집한 자료의 유형 분류와 언어 분석을 토대로 연상, 검증, 추론의 과정을 거쳐 새로운

22) 사회 방언을 교수·학습에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자는 것은 언어의 다양성을 무조건 수용하지는 태도가 아니다. 사회 현장 속에서 여과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실제 사용되는 사회 방언의 맥락을 파악하고 판단할 학습의 장을 마련하여 스스로 선택하는 역동적 태도와 판단의 관점을 제시해 주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회 방언의 사용 상황과 사용 방안에 대해 토론하고 사용 심리에 대한 것 또한 정리해 낸다. 당연히 이 활동 단계를 통해 영역별 연계성 또한 꾀할 수도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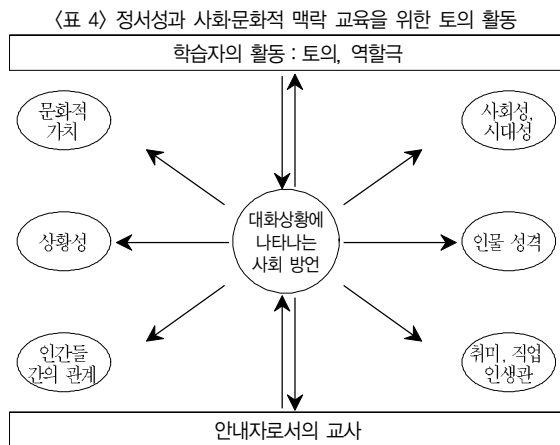
다섯째, 지금까지의 토론 활동은 소위 자아지각이론(self-perception theory)에서 주장하듯 태도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곧 의사소통의 결과 개인 및 집단의 사회적 행동을 이해하게 되고 언어 선택의 필요성을 자각한 후, 반성과 실천의 태도로 언어와 사용 상황과, 그로 인한 사회·문화적 영향 관계를 인지하고 앞으로 실제 사용에 적용하게 한다. 이 활동은 학습자의 인지와 정서를 통합하여 지속적인 행동 경향의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줄 것이다. 즉 학습자 스스로 사용해 온 언어를 점검하고 비판적으로 수용하여, 실제 사용 시에 이 과정과 학습이 내면화됨으로써, 앞으로 사용하는 사회 방언이 우리 국어에 끼칠 악해가 제거될 수 있도록 바람직한 사용 태도와 역동적이고 자발적인 습관을 형성할 것이다.

## 5.2. 정서성과 사회문화적 맥락 교육

학습의 동기는 관심과 흥미에 의해 발현되며, 그렇게 유도된 동기는 교수·학습 활동을 위한 역동적 반응을 일으켜 가치를 형성하는 효과를 낳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 방언은 인간의 정서적 심미성을 함양하고, 그로 인해 사회·문화적 문식력을 길러 주는 데 큰 역할을 하는 생동적 언어이다. 예를 들어 문학 텍스트에 드러난 사회 방언은 단순히 언어 형태를 보여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작품 속의 사회 방언은 사용자의 표현 의도에 따라 미적인 효과에서부터 이데올로기적 효과까지의 다양성을 거둘 수 있으며, 등장인물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체험할 수 있게 해준다.<sup>23)</sup>

23) 일반적으로 문학 작품에서 접하는 사회 방언들은 독자에게 언어적 재미와 신선감은 물론이고, 언어 사용 인물의 특성과 사회적 갈등이나 저항의 표식을 보여주기도 한다. 따라서 사회 방언이 작품에서 미치는 영향 관계를 교수·학습 현장에서 제시하고 토론

따라서 문학 작품 속에 사용된 사회 방언의 교육은 문학 교육 및 모든 언어 사용 기능 영역의 교수·학습에서 인물의 정서적 심미성과 사회·문화적 맥락 교육에 효용성이 있다.



첫째, 작품 속 인물 간의 대화에 드러난 사회 방언을 통해 각 인물의 성격을 상상하여 표현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이것은 문학 작품의 간접 경험을 통해 등장인물의 표현을 관찰함으로써 그의 복잡한 반응 양식을 습득하게 한다. 이것은 학습자의 표현 결함을 제거하는 등의 행동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개정 교육과정 2학년 문학에서는 “(2) 문학 작품 속 인물의 모습과 행동을 상상한다.”라고 하는 성취 기준이 있다. 물론 사회 방언 중심의 기준은 아니지만, 해설서 상의, “인물의 말이나 행동을 통하여 나타난 인물의 특성을 파악하는 활동에 중점을 둔다.”는 내용을 보아, 충분히 사회 방언을 다룰 만하다. 특히 ‘인물의 말’, 곧 대화체는 피상적인 행동으로 확인할 수 없는 섬세한 내면 의식을 표현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곧 등장인물

---

하고 해결해 가는 과정은 학습자의 비판적 사고 능력과 정서성뿐만 아니라 올바른 문화 의식을 함양시켜, 작품을 이해하는 또 하나의 타당하고 적합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이 표출해 낸 다양한 언어 표현들은 그 인물의 행동과 태도, 그리고 품성의 변화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교수·학습은 학습자에게 언어의 개별성과 다양성을 관찰하게 해 주며, 그로 인해 언어가 인간의 삶과 얼마나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지 터득하게 하여 언어 사용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sup>24)</sup> 또한 등장인물의 취미, 직업, 인생관 파악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의사와 변호사의 사용 언어가 다르고 학생과 노인의 사용 언어가 다르며, 남자와 여자의 그것이 다른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의사들은 왜 차갑고 지적인 성격으로 그려지는지, 학생들은 왜 깔끔하고 신선하지만 비밀스러운지 등을 이해하는 방법은 그들의 언어로부터 찾을 수 있으며, 이렇게 사용된 언어는 그들의 사회적 존재 방식을 판단하는 수단이 된다.

따라서 문학에서의 사회 방언 교육은 언어 현상의 비판적 통찰, 인물의 생각, 사실, 감정, 경험, 가치관 등을 상상하는 교수·학습을 할 수 있으며 자신의 사고를 확장하고, 사회적 방언이 주는 감화적 효과까지 넓혀 볼 수 있다.

둘째, 등장인물이 사용하는 사회 방언을 통해 등장인물의 상황적 특성과 이야기에 제시된 사회·문화적 배경을 파악한다.<sup>25)</sup> 방언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축약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해는 삶의 다양성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더구나 사회

24) 작품 속의 등장인물은 사건과 이야기를 이끌어 가는 주체로서, 모든 상황 맥락과 사회·문화적 맥락은 이 등장인물의 성격을 창조해 내는 수단이 된다. 이 작품 속의 핵심 요소인 인물의 성격 제시 방법은 바로 그 인물의 행동이나 대화를 통해 나타나는 데, 이러한 요소들을 통해 독자는 스스로 상상력을 동원하여 공감대를 형성한다. 이렇게 학습자의 상상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은 문학교육의 상상력과 창의성 달성의 효과적 교수·학습 방법이다.

25) 개정 교육과정(2007)의 “4-(3) 문학 작품에 나타난 인물의 삶의 모습을 이해한다.”는 사회 방언 자료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해설서에서도,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의 생각이나 말, 행동 등 인물의 삶의 모습이 그 시대의 배경과 관련됨을 이해하도록 하며, 인물의 그러한 삶의 모습은 작품의 시대적, 문화적 상황이 반영된 것임을 인식하도록 한다.”라고 설명 되어 있다. 안타깝게도 현 교육과정 상에서는 사회 방언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방언은 등장인물 한 개인의 성격이나 상황, 사회적 배경 등을 알리는 데만 활용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공동 구성원 전체가 함께 공유하는 사회적 특성, 구성원 전체의 사회 의식, 그리고 정서와 사상 등을 문학적으로 드러내기도 한다.<sup>26)</sup> 이 또한 사회 방언이 문학 작품 속에서 교육적으로 공헌하는 바이다. 사회 제도로부터 파생되는 집단 간의 언어의 차이를 인식함으로써 우리는 타자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고, 때로는 언어를 매개로 충돌하는 서로 다른 세계관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시각은 언어를 통해 드러나는 사회적 갈등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할 것이다.

이렇게 사회 방언에 담긴 사회·문화적 의미를 해석하고 비판하고 수용하고 생산하는 활동은 국어교육에서 추구하는 맥락 교육을 만족시키는 교수·학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등장인물의 말과 행동을 서로 바꾸어 봄으로써, 그로 인해 바뀌는 인물 간의 관계 및 성격 등을 비교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이 활동은 개개인의 삶에 사회 방언이 어떤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는가를 기준으로 작품 감상을 할 기회를 줄 수 있다.

국어교육의 연계성은 안으로는 사고, 감정, 판단 등과 이어지고 밖으로는 인간이 언어로 활동하며 접하는 다양한 상황, 사회, 문화로 이어진다. 특히 구체적이고 실제성을 가지는 상황 범주는 말하는 이의 표현 유형을 통해 파악이 용이하다. 말하는 이의 언어 변이형은 의사소통 상황의 방향이나 과정에 영향을 미치며, 이것은 더 나아가서 사회적 방향이나 사회화 과정의 변화도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작품 속의 등장인물을 통하여 다양한 삶의 모습을 알고 살아가는 방법이나 태도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 곧 등장하는 인물들 간의 실제 대화를 서로 바꿈으로써 인물의 성격이 바뀌거나 사건이 달라지는 것을 협동적으로 토의하거나

26) 예를 들어 한창훈의 소설 ‘나는 여기가 좋다’, ‘바다가 아름다운 이유’ 등에 나타난 어부들의 은어, 비속어들을 접촉하는 순간, 하층 사회의 일상화된 풍속이나 서민적인 삶의 훈기와 활력, 그리고 순진하고 절박한 심성을 가진 인물을 생생하게 느끼게 된다. 이것이야말로 살아있는 언어가 주는 정서성이고 사회성이다.

역할극을 해 볼 수 있다. 이 활동은 상상력을 길러주는 것은 물론 상대적 사고에 익숙하게 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 방법은 사건의 전개 과정과 인물의 말이나 행동이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지 그 관련성을 평가하고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할 기회를 부여할 것이다.<sup>27)</sup>

## 6. 논의를 맺으며

국어과 교육의 목적은 다양한 인간의 삶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가치 있는 인간이 창조될 수 있도록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인간의 변화는 지적인 면, 기능적인 면, 정의적인 면에서 이루어질 수 있고, 언어와 행동의 변화에 따르는 사고력의 변화에 의해 수반되는 것이다. 이러한 가치 지향적 변화를 위해 언어가 수단이 된다면 당연히 그 변화의 대상인 인간이 현실적으로 사용하는 언어가 중심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곧 단순히 표준어 중심으로 국어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거나, 혹은 방언이 표준어를 대체해야 한다는 논의가 아닌, 실천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의 방언 교육 내용이 설계되고 교수·학습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언어의 보편성과 개별성은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언어의 양면성이기 때문이다.

말을 배우고 가르친다는 건 더 폭 넓고 바람직한 국어 세계를 만들어 가는 노력이다. 그렇다고 사회 방언을 지나치게 내세우자는 것은 아니다. 다만 사회 방언의 쓰임이 삶 속에 있고 사회 방언과 표준어가 각자의 독자성을 지닌다면, 둘 모두 동등한 조건 하에 그 기능과 맥락을 파악하는 것은 국어교육이 지향해야 할 교수·학습 내용일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

27) 개정 교육과정(2007)의 “5-(2) 사건 전개와 인물의 관계를 파악한다.”는, 사건의 원인과 결과는 인물의 말이나 행동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작품에서 사건의 시작 부분이나 전개 과정이 달라진다면 인물의 말과 행동은 어떻게 될지, 반대로 인물의 말과 행동이 달라지면 사건의 전개 과정이 어떻게 될지 상상력을 발휘하여 이해된 전체 사건 내용을 배열·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만이 학습자에게 실제 언어 사용 맥락을 중심으로, 사회적 지위, 세대, 성별 등의 사회적 역할에 따라 다양한 의사소통의 규칙을 이해하고 그러한 차이를 비판적으로 인식하여 수용하고 바르게 생산할 수 있는 소통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국어교육만이 사회를 전제로 하고 문화 가치를 고양시키며 더 나아가 내적으로는 심리나 사고와 관련을 맺고 외적으로는 상황과 사회와 문화와 밀접하게 연계된, 인간의 삶과 함께 하는 총체로서의 국어교육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

\* 본 논문은 2009. 6. 21. 투고되었으며, 2009. 7. 2. 심사가 시작되어 2009. 7. 27. 심사가 종료되었음.

■ 참고문헌

- 강신항(1991), 『현대 국어 어휘 사용의 양상』, 태학사.
- 강희숙(2006), 『사회방언 조사방법』, 한국방언학회.
- 교육과학기술부(2007), 『국어과 교육과정』.
- 교육과학기술부(2008), 『2007 개정교육과정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국어』.
- 교육부(1997), 『국어과 교육과정』, 대한교과서.
- 구현정(1995), 「남성형·여성형 어휘의 형태와 의미 연구」, 『국어학』 25, 국어학회, pp.99~136.
- 김미혜(2005), 「사회·문화적 문해력 신장을 위한 방언의 교육 내용 연구」, 서울대 사범대 국어교육과, 회의 보고서.
- 김혜숙(2005), 「사회언어학 연구와 국어교육의 연계성-국어교육에 미치는 사회언어학적 영향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141호, 국어국문학회, pp.379~406.
- 김혜숙(2005), 『우리 말글 교육의 모습과 쓰임』, 월인.
- 박경래(2005), 『사회방언』, 한국방언학회.
- 박미혜(1993), 『사회학자들이 본 남성과 여성』, 도서출판 한울.
- 박인기(2002), 「문화적 문식성의 국어교육적 재개념화」, 『국어교육학연구』 제15집, 국어교육학회, pp.23~47.
- 박재현(2004), 「한국의 토론 문화와 토론 교육」, 『국어교육학연구』 제19집, 국어교육학회, pp.298~318.
- 오은하(2000), 「유행어의 국어교육적 연구」, 숙명여대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병혁 역(1993), 『언어사회학 서설-이태올로기와 언어』, 도서출판 까치.
- 이상규(2003), 「문학 작품에 나타난 방언」, 『새국어생활』 제13권 제4호, 국립국어원, pp.45~66.
- 이주행(2007), 『한국어 사회 방언과 지역 방언의 이해』, 한국문화사.
- 장태진(1995), 『국어변말의 연구-사회언어학적 접근』, 태학사.
- 정재찬 · 이성영 · 서혁 · 박수자(1998), 「국어과 토의·토론 학습의 수업 모형 개발 연구(1)」, 『선청어문』 제26집,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pp.359~414.
- 조추연(2004), 「사회방언의 변이와 변화」, 원광대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기호 · 김미영 공저(1998), 『비속어, 유행어, 은어의 사회언어학 분석, 언어와 사회』, 한국문화사.
- 최지현(1994), 「우스갯소리에서 제3자의 위치」, 『국어교육연구』 1호, 서울사대국어교육과, pp.141~166.

한창훈(1996), 바다가 아름다운 이유, 솔.

한창훈(2009), 나는 여기가 좋다, 문학동네.

Fishman, Joshua(1968), Reading in the Sociology of Language, The Fague : Mouton.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 <http://stdweb2.korean.go.kr/mail.jsp>

## &lt;초록&gt;

## 사회 방언과 국어교육

김혜숙

이 연구는 국어교육에서 사회 방언을 수용하여 교수·학습하는 현황을 파악하고, 효율적인 사회 방언의 교수·학습 방안을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는 표준어 교육이 전제된 국어교육에서 방언이 담당하고 있는 긍정적인 역할과 효과를 살려 실제 의사소통 행위인 담론적 실천 교육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를 갖고자 함이다.

사회 방언은, “한 공동 사회 내의 사람들이 여러 사회적 요인에 따라 달리 사용하는 언어 변이 형태”이다. 즉 사회 방언은 세대에 따라, 성별에 따라, 직업에 따라, 대중성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되는 모든 언어 형태를 통칭하는 용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 방언의 특성을 국어교육적 범주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회 방언의 언어적 특성, 정의적·심동적 특성, 그리고 사회·문화적 특성을 이해해야 한다.

사회 방언의 교육 내용과 방법으로 제시할 만한 방안으로는 반성적 사고력 향상을 위한 탐구학습과, 문학 교육 및 모든 언어 사용 기능 영역의 교수·학습에서 인물의 정서적 심미성과 사회·문화적 맥락 교육에 효용성이 있다.

그렇게 하는 것만이 학습자에게 실제 언어 사용 맥락을 중심으로, 사회적 지위, 세대, 성별 등의 사회적 역할에 따라 다양한 의사소통의 규칙을 이해하고 그러한 차이를 비판적으로 인식하여 수용하고 바르게 생산할 수 있는 소통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국어교육만이 사회를 전제로 하고 문화 가치를 고양시키며 더 나아가 내적으로는 심리나 사고와 관련을 맺고 외적으로는 상황과 사회와 문화와 밀접하게 연계된, 인간의 삶과 함께 하는 총체로서의 국어교육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핵심어】** 사회 방언, 국어교육, 교수·학습 방안, 반성적 사고력, 탐구학습, 정서적 심미성, 사회·문화적 맥락 교육, 의사소통 능력

## &lt;Abstract&gt;

**Social Dialect and Korean Language Education**

Kim, Hye-souk

The goal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is to understand a various human life and to change a person for creating a valuable human. Changes of human are achieved in parts of knowledge, skill, and affection, and these are followed by changes of thinking power in terms of language and behavior. If a language becomes a means for these value-oriented changes that must properly focus on an object of changes, that is, an actual language used by human. It means that, discussions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have to go, not to perform a way on the standard language focused or on a dialect which alternates the standard language, but to learn and teach by designing a practical and develop dialect educational contents. Because universality and individuality of language are both important sides of language ambilaterality.

Learning and teaching language is effort to make a broad and desirable Korean society and culture. But it doesn't mean a social dialect have to be standing front. Nevertheless, if an using social dialect lies on an inside of real life and a social dialect and the standard language have a specific individuality, both of them could be an aiming learning and teaching contents of understanding a skill and context of them in a same condition. That is a way that learners could understand various communication rules in accordance with a social role which is a social status, a generation, a sex distinction. And also, learners could develop their communication abilities to accept critically and produce properly a difference of the standard language and a dialect.

These Korean language education only raises cultural value including

society, by extension, Korean language education as a human life could be made which have an internal network relating a human mind, thinking and an external network intimating a situation, a society and a culture.

**【Key words】** social dialect, Korean language education, Learning and teaching method, social and cultural context, communication competence

## 【토론문】

## “사회방언과 국어교육”에 대한 토론문

강희숙(조선대 국문과)

이 연구는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자연언어로서의 자격을 지니고 있는 사회방언을 국어과 교수·학습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국어교육의 지평을 넓히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연구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진공 상태의, 다분히 추상적 성격의 표준어 지향의 사고에서 벗어나 일상생활과 문학 또는 다양한 매체 자료에서 나타나는 실제적이면서도 역동적 의미의 국어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연구는 매우 중요한 논의의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선생님과 마찬가지로 사회방언을 관찰하고 분석하는 일에 관심을 두고 있는 연구자로서 이러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루어진 선생님의 논의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첫째, 사회방언은 무엇인가?

둘째, 사회방언의 교수·학습 현황은 어떠한가?

셋째, 사회방언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그런데 두 번째와 세 번째 문제의 해결은 결국 첫 번째로 제시한 ‘사회방언’의 개념과 특성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출발한 것이라는 점에서 사회방언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이 점에서 저는 선생님과 견해를 약간 달리합니다.

사회방언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선생님께서는 “한 공동사회 내의 사람들이 여러 사회적 요인에 따라 달리 사용하는 언어 변이 형태”라는 답을 제시하고 나서 사회방언에는 유행어, 은어, 비어, 속어, 전문어, 신어, 남성어와 여성어, 노인어와 유아어, 군대어, 각종 전문어 등이 속한다고 보셨습니다.

문제는 그와 같은 분류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고 보는데, 선생님께서는 사회방언을 몇몇 특수한 사회 집단의 전유물로 보거나, 표준어와 대립되는 비표준적인 또는 탈규범적인 요소로 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언급이 그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 (1) 사회방언은 사회적으로 한정된 집단인 사회적 계층이나 문화를 드러내는 사회·문화적 의미를 갖는다.
- (2) 사회방언이 아무리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우리말의 한 실체이자 큰 줄기임은 부인할 수 없다.
- (3) 사회방언의 남용으로 인한 일탈과 혼돈은 아름다운 우리말을 파괴하고 세대 간 언어 격차와 사회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자면, 사회방언은 그것을 사용 혹은 향유하는 집단이 별도로 존재하며, 그러한 집단의 언어는 경우에 따라 부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고, 따라서 그들의 언어를 남용하게 되면, 우리말의 파괴와 함께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도 있는 대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에는 방언은 “한 언어를 형성하고 있는 하위 단위로서의 언어 체계 전반을 가리키는 것”(이익섭 2006 : 2)이라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한국어는 우리나라에서 쓰이는 각 지역방언과 사회방언의 집합체라는 전제가 빠져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만일 방언을 “한 언어를 형성하고 있는 하위 단위로서의 언어 체계 전반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본다면, 이른바 사회방언학의 관점에서 한국어는 특수한 몇몇 집단이 아니라 한국사회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회집단이 다양한 사회적 상황 혹은 맥락에서 사용하는 한국어의 총체여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사회적 요인에 따른 다양한 언어 변이 (linguistic variation) 현상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고 봅니다. 말하자면, 한국어는 첫째, 언어공동체의 사회·문화적 특성에 따라, 둘째, 화자의 사회적 신분에 따라, 셋째, 담화의 상황적 맥락 등과 같은 사회적 요인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다양한 언어 변이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국어사용의 실제적인 모습에 대한 관찰과 분석은 대도시의 말과 농촌의 말이 다르고, 농촌 사회 안에서도 전통적 의미의 집성촌과 일반적인 민촌의 말이 다르며, 세대와 성별, 사회 계층에 따라 사용하는 말이 다른 것은 물론 한 개별화자라고 하더라도 어떠한 상황적 맥락에 놓여 있는가에 따라 말투(speech style)가 달라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령, 최근 들어 사회방언학의 중요한 관찰 대상이 되고 있는 국어의 호칭 문제 가운데 하나를 검토해 본다고 한다면, 나이가 어느 정도 든 기혼 여성에 대해 ‘아주머니, 아줌마, 아주미, 아지매, 아집’ 등의 변이형들이 공존하며, 이러한 변이형들이 언어 공동체의 성격에 따라, 또는 언어 사용자의 사회적 신분에 따라, 또는 그 언어가 사용되는 상황적 맥락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요컨대 이와 같은 의미에서의 다양성과 역동성이 일상생활에서는 물론이요 문학작품, 매체 자료 등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관찰과 분석을 토대로 그 가운데서 표준적인 또는 규범적인 성격의 국어에 대한 국어 화자들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접근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국어 교육의 방향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과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사회방언을 예컨대, 유행어, 은어, 비어, 속어, 전문어, 신어, 남성어와 여성어, 노인어와 유아어, 군대어, 각종 전문어 등과 같은 방식으로 별도의 어휘 층위에 존재하는 대상으로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선생님의 실제 입장은 어떤 것이지요? 그리고 그와 같은 사회방언들은 규범적 성격의 표준어와는 전혀 성격이 다른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요? 이에 대한 선생님의 견해를 여쭙고 싶습니다.